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22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1라운드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를 승리로 마치고 팬들에게 박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손흥민은 후반 10분 선제 결승 골을 넣어 팀의 1-0 개막전 승리를 이끌었다.

손흥민, 올 EPL 시즌 '첫 골'

토트넘, 맨시티전서 1-0 승리
분데스리가 레버쿠젠 시절 이후
8년 만에 개막전 득점포

‘손세이셔널’ 손흥민(29)이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와의 2021~2022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개막전에서 리그 첫 골이자 결승골을 터트리며 토트넘 홋스퍼에 승리를 안겼다.
토트넘은 16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시티와의 EPL 1라운드 홈 경기에서 손흥민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이적설에 휘말린 주전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이 이날 출전 명단에서 제외된 가운데 손흥민은 최전방 원톱 공격수로 나서 후반 10분 상대 페널티지역 오른쪽 외곽 지역에서 왼발 슈트로 결승골을 터트렸다.
손흥민은 풀타임을 뛰며 토트넘의 개막전 승리에 앞장섰다.
이번 시즌 토트넘 지휘봉을 잡은 포르투갈 출신의 누누 이스파리투 산투 감독은 손흥민의 활약에 힘입어 토트넘의 리그 데뷔전에서 첫 승을 신고했다.

반면 맨시티는 EPL 사상 3번째로 개막전에서 패한 디펜딩 챔피언이 됐다.
2016~2017시즌 레스터시티가 힐시타에 1-2로 졌고 2017~2018시즌 첼시가 번리에 2-3으로 패한 바 있다.
토트넘 4-2-3-1 전술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손흥민은 경기 내내 날카로운 침투와 슈팅으로 맨시티 골문을 두드렸다.
전반 27분 스테번 베르헤메인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왼발 슈트를 시도했으나, 수비수에게 맞고 무산됐다. 전반 40분에도 루카스 모우라의 패스를 잡아 오른발 슈트를 했지만, 맨시티 수비수 중앙 칸셀루에 맞고 골문 옆으로 빔나갔다.
손흥민은 후반 10분 마침내 맨시티 골망을 흔들었다. 역습 찬스에서 베르헤메인이 측면으로 파고드는 손흥민에게 볼을 전달했다.
손흥민은 페널티지역 우측에서 맨시티 수비수 네이션 이케를 앞에 두고 날카로운 왼발 슈트로 맨시티의 골문 구석을 갈랐다. 올 시즌 리그 1호골이다.
정규리그 개막전 득점은 2013~2014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 시절 이후 8년 만이다. 당시 손흥민은 선제골을 넣었고, 레버쿠젠은 베르더 브레멘에 2-1로 승리했다.
손흥민은 맨시티전 개인 통산 7호골로 ‘전적’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정규리그에서 4

골, 유럽축구연맹(UFA) 챔피언스리그에서 3골을 기록했다.
참고로 손흥민이 잉글랜드 무대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팀은 사우샘프턴(정규리그 9골·FA컵 2골)이고 다음은 맨시티다.
또 손흥민은 펍 과르디올라 감독 체제의 맨시티를 상대로 제이미 바디(레스터 9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골을 넣은 선수이기도 하다. /뉴시스

“손흥민은 킬러” 토트넘 감독 찬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누누 이스파리투 산투 토트넘 홋스퍼 감독이 개막전 승리를 이끈 손흥민(29)을 극찬했다.
16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와의 2021~2022시즌 EPL 1라운드에서 1-0으로 승리한 뒤 산투 감독은 “손흥민의 재능이 놀랍다”면서 “그는 전방의 모든 포지션에 설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라고 말했다. 그는 “역동적이며 빠르고 경기를 잘 읽는다. 그는 상대의 빈 공간을 찾아내는 킬러”라고 엄지를 세웠다.
이어 “손흥민은 오늘 잘했지만, 앞으로 더 잘할 것”이라며 강한 신뢰를 드러냈다. /뉴시스

한교원 멀티골... 전북현대 '3연승'

K리그1 FC서울과 흥명기서 3-2 승리
선두 울산 승점 3점차로 '맹추격'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가 3연승을 달리며 선두 울산 현대를 맹추격했다.
전북은 지난 15일 오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1 25라운드 홈 경기에서 FC서울에 3-2로 승리했다.
3연승을 질주한 전북은 승점 42(12승4패)를 기록하며 2경기 더 치른 선두 울산(승점 45)과의 승점 차를 3점으로 좁혔다.
반면 3경기 무패(2승 무)가 끊긴 서울은 11위(승점 24)에 자리했다.
전북은 전반 5분 만에 한교원의 선제골로 앞서갔다. 문전 혼전 상황에서 구스타보에게 맞고 흐른 공을 한교원이 오른발로 차 넣었다.
분위기를 탄 전북은 전반 19분 이유현의 왼발 크로스를 구스타보가 헤더로 마무리하며 추가골을 터트렸다.
서울은 전반 추가시간 여름이 송민규의 반칙으로 얻어낸 페널티킥을 나상호가 키커로 나서 차 넣으며 만회골에 성공했다.
후반에 전북이 한 골을 다시 더 달아났다. 교체로 들어온 문선민과 일류헨코가 이데일 패스로 서울 수비를 무너트렸고, 문선민의 오른발 슈트가 골키퍼에 맞고 나오자 쇠도하던 한교원이 가볍게 밀어 넣었다.
한교원은 이날 멀티골로 시즌 득점은 8골로 늘렸다.
서울은 후반 40분 교체로 투입된 가브리엘이 고요한의 크로스를 머리로 방향을 바꿔 추격의 불씨를 살렸다. 여름이 서울 유니폼을 입은



멀티골을 성공시킨 뒤 세레머니를 하고 있는 전북현대 한교원(사진 오른쪽).

가브리엘의 데뷔골이다. 그러나 더는 추가 골이 나오지 않았고, 전북이 3-2 한 골 차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뉴시스

움직이는 체육관 '흥미진진'

무주 구천초 등 도내 초교 3곳서 스포츠버스 운영
스포츠 게임존 · 체육 활동 프로그램 등 다채
코로나19 여파 따라 행사 개최 적합 시기 고려

대한체육회가 전북지역 3개 초등학교에서 스포츠버스를 운영한다.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의 2021 스포츠버스 지원 사업에 도내에서 무주 구천초와 무주 과목초, 김제 봉남초 등 총 3개교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평소 스포츠를 접하기 어려운 도서산간지역 및 소외계층 유·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스포츠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행사는 스포츠버스 내·외부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른바 '움직이는 체육관'과 체육을 통해 하나되는 '작은 운동회'로 나눠 진행된다.
학생과 교사는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스포츠 게임존 ▲건강상식 제공 ▲체력측정 ▲체육 활동(피구·줄다리기 등)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대한체육회는 행사 개최에 적합한 시기를 고려,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은성기자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